

# 소득·신용 낮으면 '카드불가'

## 월가처분 소득 50만원 넘어야 발급 자격 신용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

앞으로 월 가처분소득(소득-부채상환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심사하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여러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 가운데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약탈적 대출'이란 비판을 받은 카드본은 이용한도에 넣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심사하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여러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 가운데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대출한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위 권대영 중소기업과장은 "저신용자에게 마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폐단과 '카드 돌려막기'를 예방하고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용한도를 책정하는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능력을 판단하던 것에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신용도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하에서 한도를 책정해야 한다.

신용도가 1~4등급으로 높은 사람은 신용카드사가 예전처럼 자체 기준으로 한도를 두되 한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금감원이 기준을 바꾸도록 요구한다.

다만 연체나 한도 증액이 없었다면 가처분소득 대신 최근 6개월간 월 최대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결혼이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신용카드사가 자체 판단으로 1~2개월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은 유지된다.

그동안 별도로 한도를 두지 않았던 카드본은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가 같은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 빌릴 수 있게 바뀐다.

카드본을 신청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이용한도에서 평균 이용금액을 뺀 규모 이하에 맞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구조다.

모범규준에는 매년 1차례 이상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점검하고,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으면 이용한도를 줄이는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범규준은 이날 말까지 신용카드사가 각사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

### "창업준비 함께해요" 신보 내달 7일까지 2차 교육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내달 5~7일까지 마포 공덕동 본사에서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1년 이내의 초기 사업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2년 2차 창업스쿨'을 개최한다.

신보 창업스쿨은 2008년에 시작돼 12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대표적인 전문 창업교육으로 자리매김해 총 38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창업스쿨은 사업아이템선정, 자금조달 및 세무관리, 마케팅 영업전략 등 창업 전반에 걸쳐 이뤄지며 워크숍 형태의 참여식 수업, 창업 성공사례 등 사례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교육생들의 실천 감각 향상과 실질적인 창업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된다.

창업스쿨 수강 희망자는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금감원 25일 광주서 서민금융 상담 대출·신용회복 고민 해결

금융감독원은 광주지역 주민들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은행과 8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광주 서민금융 상담 대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광주은행 본점 3층 강당에서 실시하는 행사에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등이 직접 참석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충을 들을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 관련 기관 전문가가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자영업자대출, 전환대출, 신용회복 지원 등에 대한 맞춤형 일대일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참가자에게는 광주은행 등 6개은행 및 한국이존 등을 통해 새희망홀씨 등에 대한 대출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준다. 또 참여 6개은행



광주은행은 올해에만 58회에 걸쳐 청소년 금융교육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화정남초등학교에서 열린 'KJB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 금융교실 합리적인 용돈관리' 강의에서 학생들이 흥장을 만들고 기뻐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어려운 금융용어 귀에 쏙쏙~" 광주은행 청소년 금융교육 5천명 돌파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정립 및 금융권 취업준비를 위한 학생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청소년 금융교육'이 지역 교육계와 청소년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 금융교육'은 올해 39개 학교 및 기관에서 58회에 걸쳐 50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과의 사별정,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금융권 취업 등의 주제로 펼쳐지고 있다.

올해 14회 강의를 하고 있는 정종일 송정지점장은 학생들에게 '나의 꿈! 나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금융회사의 매력, 금융회사 취업 준비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함께 광주은행은 지난 9월 광주영천초등학교에서 '광주은행과 함께 하는 어린이 금융교실-합리적인 용돈관리' 교육을 펼치는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드게임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소비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길러주는 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준원 사회공헌사무국 본부장은 "광주은행은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라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으로 지역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고위험 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 총당금 적립 기준 상향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고위험 대출'이 49조원에 달했다. 전체 대출의 30%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고위험 대출을 억제하고자 상호금융의 총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억원 이상 거처식·일시상환식 대출과 5개 이상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했다.

큰 금액을 빌려놓고 원금은 놔둔 채 이자만 근근이 갚는 대출은 부실 위험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 대출 역시 부실 위험이 크다.

금융위는 고위험 대출 가운데 '요주의', '고장',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대출은 총당금을 20% 더 쌓도록 했다. 다만 급격한 총당금 적립 부담은 상호금융조합이 견디기 어려운 만큼 내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나눠 쌓으면 된다.

총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은 신규대출에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차환(만기가 돌아와 다시 대출하는 것)할 때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대출 규모가 200여만원을 넘는 큰 조합에 대해선 예대율(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80%로 제한했다.

대출금을 계산할 때 정책자금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제외된다. 예수금은 예금과 출자금을 더해 구한다.

지난 6월 말 현재 예대율이 80%를 넘는 조합은 160개다. 예대율이 규제 기준을 넘는 조합은 2013년 말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3·4분기 실적주 주목... 모바일 유망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 발표 이후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 발표가 잇따르고, 중국의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시장의 예상(7.4%)과 일치하며 경기 둔화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7분기 연속 GDP 증가율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9월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가 시장의 예상을 웃돌며 경기 경착륙 우려를 크게 줄여주고 있다.

유럽도 스페인 구제금융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탈리아가 예상보다 늘어난 180억유로 규모의 국제(4년물)을 2.55%의 금리로 발행한 데 이어 스페인 역시 10년 만기 국제채를 평균 5.458%의 금리로 발행하는데 성공하는 등 재정위기가 국가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금융감독체제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이다.

이번 주 코퍼는 3·4분기 실적시즌이 본격화되는데 따른 종목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1차적인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3·4분기 실적은 물론 4·4분기 전망치

까지 하향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 특히 글로벌 경기 및 유럽사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 하방경직성이 훼손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일단 3·4분기 및 4·4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과 패러다임 변화로 새롭게 성장성이 부각되는 핵심주 위주의 매매와 빠른 트레이딩이 바람직해 보인다.

3·4분기와 4·4분기 실적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메리트를 겸비하고 있는 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업종, 내수진장 등으로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에 진출한 내수소비재와 중국 경제에 민감한 기계 및 화학 업종,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선 국내 IT 환경변화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실적과 가격메리트를 겸비하고 있는 모바일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롯데제이티비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www.LOTTE.JTB.com

여행문의 1577-6511

이달의 우수대리점 광주롯데백화점 062-223-5588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062-228-6644

무안출발특정 \*풀음선/상그릴라 초특급호텔 북경/만리장성+금명양조 4일/5일 439,000원부터

광주출발 일본 온천 여행 \*부관리/쾌속선/항공이용 큐슈 온천여행 3일/4일 299,000원부터

Aloha~ 하와이래 지상 낙원 하와이 5일/6일 999,000원부터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 일컫는 세계최대 휴양지 터키 일주 8일/9일 1,390,000원부터

그리스 특선 그리스 일주 6일 999,000원부터

유럽 A380 파리 휘황 기념\* 베네룩스+독일+파리 7일 1,590,000원부터

동남아 홍콩 홍콩스푹 인기상품 상륙 벵골 방콕 파타야 5일 499,000원부터

캄/사이판 C.I.O.소핑 10월 7일 방영상품 캄 온워드 4일/5일 649,000원부터

대양주/미주 3개국 여행 밀포드사운드+아이보르/기대석 호주 뉴질랜드 남북섬 상가 10일 1,990,000원부터

크루즈 GS 홈쇼핑 히트상품 동남아시아 3개국 레전드 크루즈 1,090,000원부터

광주전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점,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점, 매월점, 광산점, 농성점, 전남점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